

서삼릉의 사회적 변용과 특성으로부터 본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향

Tourism Resources Strategy of Royal Tomb: from Seosam-noung's Social Transfiguration and Characteristic Perspectives

박구원, 박진우, 지봉구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Koo-Won Park(parfor@cju.ac.kr), Jin-Woo Park(jinwoopark@cju.ac.kr),
Bong-Gu Jee(tourinfo@cju.ac.kr)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왕릉의 활용논의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는 있는 서삼릉을 대상으로 그의 사회적 변용과 이용 및 공간적 특성을 통해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결과, 왕릉의 관광레크레이션적 가치는 왕릉이라는 문화적 요인 못지않게 주변지역의 특성적인 환경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왕릉의 개발수요는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에 앞서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바, 시민휴식공간과 관광레크레이션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가가 공간개발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왕릉의 특성은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왕릉을 구성하는 인물적 특성과 왕릉을 둘러싼 식생 또는 경관학적 특성에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공간, 식생, 인물 구성에 대한 스토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 | 왕릉 | 관광자원화 방안 | 서삼릉 |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tourism resources strategies of royal tomb from the perspectives of Seosam-noung's social transfigurations and space characteristics. The result showed that environmental factors were no less important than cultural factors for evaluating royal tomb's recreational value. Because a royal tomb needs to be developed as a rest place for citizens, how citizen's rest place and tourism recreation can be coexisted is a significant matter for a space development. In addition, royal tomb's characteristic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environment, man, gardening, and scenery. Therefore, the story research of these gardening, man, space needs to be investigated.

■ keyword : | Royal Tomb(Epitaphs of King) | Tourism Resources Strategy | Seosam-Noung |

I. 서론

왕릉은 국가적인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는 주요한 교육의 장소로서 그의 보전 및 활용적 가치가 높다. 따라

서 많은 국가에서는 왕릉을 국가 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찰하는 한편, 국가정신을 배우고 알리는 교육의 장소로서 또한 국가의 중요한 관광기반으로서 활용하는 예도 많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현실은 극단적 보전 등으로 인해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높고, 왕릉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¹⁾ 또한 최근 왕릉을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관광평소화 시켜가는 각국의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도 조선의 왕릉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²⁾, 왕릉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왕릉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왕릉에 대한 연구는 왕릉의 조성 역사에 관한 연구[6][7][24], 왕릉의 위치 및 배치 형태에 관한 연구[8], 왕릉의 경관관리를 위한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21-23][25], 왕릉의 문양에 관한 연구[9][10], 왕릉을 통해본 생과 사의 관념에 관한 연구[26] 등이 이루어져 왔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자원의 풍수지리적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조선 초기 왕릉을 중심으로-[20]」이 유일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주로 풍수학적 위치와 구조를 논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한편, 앞서 거론된 이들 연구는 주로 서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왕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삼릉과 같이 많은 변화와 문제를 갖고 있는 왕릉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왕릉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고, 왕릉이 관광적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다.

왕릉의 활용방안 또는 관광자원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그들이 어떻게 변해 왔고, 그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삼릉을 대상으로, 그의 사회적 변용과 공간 및 이용적 특성을 밝혀, 왕릉의 기본적인 관광자원화 방향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조선왕릉과 서삼릉

1. 왕릉의 가치와 특성

왕릉은 왕의 삶과 철학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며, 외형적 특성만으로도 당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반증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상이 된다[33]. 지금까지의 왕릉연구를 통해 보면 왕릉을 통해서 왕의 역사와 사후 세계를 다루는 왕실의 기본적인 생각, 능제에 대한 시대적 사상 및 기법, 유교제례 절차 및 관리기법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왕릉의 관광자원적 가치 또는 기능을 우선 논한다면, 크게 왕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학습장으로서의 기능, 당대의 자연관과 풍수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서의 역할, 음택사상과 제례 절차 등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선왕릉이 다른 국가의 왕릉과 비교해 나타나는 특징으로서는 도심 속에 존재하는 왕릉으로서 현대의 삶과 공존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과, 자연성에 기초한 공간 구조라는 점[15][16], 국가적 제례의식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7]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많은 공론의 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중요한 무기로서 거론되고 있다.

2. 조선왕릉의 구성과 보전 및 활용 논의

왕릉은 왕족의 무덤을 말하는 것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陵), 그 직계자제의 무덤을 원(園)이라 부른다. 현재 조선왕조의 왕실묘는 총 109기로 그 중 능이 44기, 원이 13기, 묘가 52기로 분류되며, 이 중 왕릉(44기)은 2기를 제외한 42기가 남한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들 42기의 왕릉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을 중심으로 약 40km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구릉, 서오릉, 서삼릉이 대표적인 왕릉군을 이루고 있다.

최근 이들 왕릉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개발과 보전에 따른 규제와 활용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선 규제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엄격

1) 문화재청 및 관련보고자료 등[11]에 따르면, 홍유릉, 서삼릉, 서오릉 등 많은 왕릉에서 개발규제에 따른 문제 및 왕릉의 개방을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문화재청에서는 조선왕릉을 2005년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에 등재시켰으며, 현재 2008년 등재를 목적으로 국제학술회의, 조선왕릉 알리기 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 개발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권의 침해는 물론 자원의 활용 및 지역발전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문화재활용을 위한 정책 또는 문화재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문화재가 일반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내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문화재보전구역내에서는 이러한 개발행위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전구역 및 그 주변에는 문화재지정 이전에 조성된 건축물도 많고, 사유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보전과 사유재산권 문제가 대립될 수밖에 없다. 한편,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재를 보전·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왕릉 등을 장기간 폐쇄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문화자원의 변형(훼손) 및 잘못된 이용행위 등을 예산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방치해온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문화재 관리에는 보전과 개발의 문제가 항상 존재해 왔고, 최근 문화재의 지정 및 규제 권한이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전됨으로써 이러한 보전과 개발논의는 한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모든 왕릉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특히 서삼릉, 홍유릉, 영릉 등과 같이 시가지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사유지 개입이 많거나, 또는 관광적 잠재수요가 큰 지역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민정부이후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전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의 소중한 관광매력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대세는 문화자원을 적극 개방 또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12][13][30].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왕릉을 개방하고, 체험학습 등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왕릉의 활용 논의는 조선의 왕릉과 원이 2005년에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으로 등록됨으로써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에서는 조선왕릉의 체계적인 등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왕릉의 가치와 특

성 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왕릉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왕릉의 복원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3][4][11].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세계문화유산로서의 가치로써 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소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에 있어, 왕릉의 활용논의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전후로 금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서삼릉의 특성

서삼릉은 조선의 3대 왕릉군 중 하나이지만 왕릉은 삼릉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그러나 왕릉의 역사는 그 어느 왕릉에 못지않게 오래되었고,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왕릉군(112개 능-묘-태실, 면적 약100만평)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서삼릉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변용이 발생했고, 문화재 훼손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민들과 가장 많은 충돌을 빚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표 1. 조선 3대 왕릉군의 개요

구분	동구릉	서오릉	서삼릉
위치	구리시 인창동	고양시 율동동	고양시 원당동
구성 내역	능 9기	능 5기 원 1기 묘 1기	능 3기 원 3기 묘 52기 태실 54위
지정	사적 193호	사적 198호	사적 200호
관리 주체	문화재청 동구릉지구관리소	문화재청 고양지구관리소	고양지구관리소 서삼릉출장소
면적	579,557평	553,616평	75,383평
당초 면적			1920년 130만평 1960년 100만평 1965년 90만평
학술 가치	국내 최대 왕릉군 (왕릉 변화 과정)	조선조 중기 왕릉 (사회상 연구)	조선 중기/후기왕릉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관련자료[3][31]을 토대로 작성

III. 서삼릉의 사회적 변용

1. 서삼릉의 변용과정

서삼릉의 변용과정은 서삼릉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와 문헌 등을 토대로 서삼릉의 변용과정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서삼릉 지역은 원래 왕릉의 수렴지로 이용되었다고 한다.³⁾ 그러던 것이 1532년 중종의 계비 장경황후 능(禧陵)을 시작으로 왕릉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545년 장경황후의 아들인 인종과 인종의 비 인성황후 능인 효릉(孝陵) 조성되고, 1865년 철종과 그의 비 철인황후 김씨의 묘인 예릉(睿陵)이 조성됨으로서, 현재와 같은 삼릉이 형성되었다. 조선의 왕릉은 통상 능역밖에 왕릉을 관리하는 재실을 두어 종9품 참봉과 함께 다수의 인원을 상주시켰으며, 「능원묘위전」 및 「국조오례의」 등을 보면 능은 성저 1백리를 원칙으로 하고, 상지관을 보내 풍수리지와 토질 등을 토대로 능지가 결정되었으며, 능지가 결정되면 일정구역 내 개인재산과 개인묘까지 철거 이장되었다. 또한 능의 관리를 위해 약 80결의 경지가 운영되고, 금표(禁標)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무단 출입이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왕릉은 왕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보호구역의 의미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이왕직(李王職)이 신설되어 이왕직에 의해 분묘의 집장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삼릉의 왕릉군은 그의 수가 크게 확대된다. 즉 이왕직에서는 서울, 경기 일원에 산재한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분묘를 집장관리 한다는 명목아래 집장지를 서삼릉 경역 내로 정해, 숙종의 후궁인 소의 유씨 묘 외 15기와 세종대왕의 1녀 정소묘 외 18기를 천묘 집장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조의 태실 등 22기와 왕자 등의 태실 3기를 1930년대를 전후하여 서삼릉 경역 내로 이설했던 것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묘와 태실 등의 집장은 서삼릉 능역일원을 공동묘역으로 변형케 하여 왕릉의 존엄과 품격을 훼손시키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왕릉의 품격과 권위에 대한 훼손이 크게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엄격히 말해 이 시기에 왕릉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나, 능역자체가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었다. 왕릉의 공간적 변형이 크게 이루어진 것은 일제시대 이후가 된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왕실재산이 관리 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서삼릉의 본격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1970년 5월 효릉, 희릉, 예릉 등이 사적 200호로 지정(71,627평)되고, 문화재관리국 서삼릉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서삼릉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삼릉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을 전후한 시기로 나타난다. 1965년에 2개의 골프장(한양골프장과 뉴코리아 골프장) 건립을 시작으로, 농협대학의 조성,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훈련소 조성, 농협중앙회에 따른 목장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 이후에도 낙농단지 편입에 따라 재실이 철거되고, 능역에 종마목장이 조성되고, 군부대가 이전되는 등 많은 변화와 훼손이 일어났다. 이들에 의해 훼손된 토지는 1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즉 이 시기는 크게 왕릉의 보전과 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능만 남긴 채 능역은 모두 사유지로 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1968년 당시 뉴질랜드와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한양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마주보이는 서삼릉(능역)의 광활한 숲을 보고 뉴질랜드와 같은 방목목장으로 조성하면 어떻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때 이를 교시로 잘못 받아들인 측근들은 목장조성사업을 농협중앙회에 지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지시받은 농협중앙회가 국가 땅 40만평 부지를 헐값(68,670,000원)으로 사들여 서삼릉 목장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 7개 능을 연결하는 숲이 모두 파헤쳐지고, 능향로 또한 목초지로 변하게 되었다. 이 땅은 현재 축협중앙회 산하의 유우개량사업소 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시범낙농단지 조성을 시범함으로써 경역의 대부분이 낙농을 위한

3) 지역원로들에 의하면 이 지역이 원래 왕릉의 수렴지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이은길 경기도 도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결의(2000. 6. 29)」에서도 “고양시에도 조선 왕실의 수렴지와 왕릉으로 조성된 창덕궁 소유의 약130만평의 서삼릉수목지가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목초지로 바뀌어 일단의 경역은 예·회룡구역, 효룡구역, 후궁·왕자·공주묘, 태실집장 구역, 소경원 구역 등으로 완전 분할되고, 각 권역은 서로 통행할 수 없는 고립상태로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존재가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1970년 5월 효룡, 회룡, 예룡 등을 사적 제200호로 지정한 것에 있으나, 이미 왕룡은 많은 부분 사유지화 되어, 분할·고립된 것에 있다[19]. 또한 이후에도 예룡 옆에 종마목장이 조성되고 소경원 인근에 군부대가 이전해 옴에 따라 능역은 더욱 훼손·단절되고, 문화재보전구역이 관리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킴에 따라 서삼릉은 일반시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에 있다.

이후 1994년에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농협중앙회로부터 3,000평의 토지를 환수 받고, 능의 개방이라는 일련의 성과를 얻고 시민운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 그러나 2003년 삼송역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4년부터 제2차 시민운동이 재 점화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요체는 군사정권시절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축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마사회·농협·축협 등으로부터 각각 훼손되었던 것, 그러나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이들 업종보다는 서삼릉의 보존과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를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농림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①사유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을 복원하고, ②서삼릉 비공개 구역을 전면 공개해 서삼릉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2. 변용의 특징

서삼릉의 변용 특징은 우선 서삼릉이 당초부터 수려한 풍경지(수렵지, 풍수지리지역)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풍경지를 중심으로 각종 묘와 태실, 골프장 등이 집장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보호되는 한편, 공격 또는 사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매우 이율배반적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재보전은 극단적 보전에 의해 일반인

들에게 멀어졌고, 주변환경과 능역은 명분 없는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우를 범했다. 이것은 관리방침의 부재 또는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에서 발생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서삼릉의 이율배반적 관리가 시민운동의 전개를 불러들였고, 시민운동은 새로이 주민을 위한 개방(관광레크레이션지로서의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근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시민운동의 성명발표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도시 발달에 따라 서삼릉이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만큼 훌륭한 자원적 가치를 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관리형태가 1961년 서삼릉 출장소에서 고양산림보호사무소 개편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표 2], 서삼릉을 찾는 방문객이 서삼릉 문화재보전구역보다, 종마목장 등 주변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2].

3. 서삼릉 발전논의의 빛과 그늘

3.1 빛

서삼릉의 보전과 활용은 시민운동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고, 지역의 매력있는 관광자원 및 시민휴식공간으로의 발전이 추구하고 있다. 이들 개발논의에 있어서는 3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하나는 주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시민운동(주민)에 의한 상향식 개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삼릉의 자연과 역사적 보전을 전제로 한 지역개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국가문화정책 및 상위계획을 통해 이러한 개발명분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⁴⁾.

3.2 그늘

그러나 이러한 개발논의에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0년 이후 국가문화정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과 주민수요를 감안해 2003년 「제2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서삼릉 지역을 우선 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5].

첫 번째 서삼릉은 조선의 대표적인 왕릉군의 하나로 위치되고 있지만, 어떠한 연유에서 이곳에 거대 왕릉군이 이루어졌는가는 아직 명확치 않다. 또한 서삼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개발이 가능 했고, 군부대 등이 어떠한 배경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추측만 무성할 뿐 불분명 하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은 서삼릉지역을 복원하고, 그를 위해 토지를 환수 받는데 있어 적지 않는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문제는 “복원정비”의 본질적 주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서삼릉의 복원정비와 시민휴식공간으로의 조성이 서삼릉정비의 기본적인 개발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복원정비에서 가장 필요한 “원풍경”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일제시대의 묘지 집적과정과 개발시대의 부지분할과정의 설명되고, 일부 시설물의 잘못된 배치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발이전 단계에서의 원풍경은 명확히 그려지지 않고 있다. 즉 과거의 모습이 명확히 않은 상태에서 복원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풍경의 부재는 서삼릉 정비계획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발범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삼릉지역은 문화재로서의 완전복원과 관광레크레이션적 개발을 통한 완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농협중앙회, 축협,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등)이 어떠한 입장과 여건을 갖고 있는지, 고양시와 지역주민은 이러한 복원과 개방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명확히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표 2. 서삼릉의 변동과정

구분	주요 사건
이전	▷ 왕의 수렴지
조선 시대	▷ 1537년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능 터로 지정(회릉) ▷ 1545년 장경왕후 아들 인종과 인성왕후 능인 효릉 조성 ▷ 숙종~조선말까지 후궁/대군/공주/옹주 등 많은 분묘조성 ▷ 1645년 소현세자의 묘 조성(소현묘 또는 소경원) ▷ 1786년 문효세자 서거, 1944년 효정릉에서 이장 ▷ 1865년 철종, 철인왕후 김씨의 능(1878)인 예릉 조성
광복 후	▷ 명종후궁 경빈 이씨 등 후궁묘 7기 천묘 ▷ 고종 1남 원화군묘 천묘 ▷ 1969년 성종 비 폐비 윤씨의 묘 천묘(회묘)

일제 시대	▷ 1910년 왕실 관리를 위한 이왕직 설치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왕실묘 13기 집장, 25기의 태실 집장
1960년대	▷ 1965년 한양골프장과 뉴코리아 골프장 건설(48만평) ▷ 1965년 농협대학 조성(창덕궁 소유의 10만평) ▷ 1969년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훈련소(회묘 앞 1만평) ▷ 1960년대 말 구릉지를 서삼릉목장으로 조성(40만평)
1970년대	▷ 1970년 재실이 낙농단지에 편입되어 철거 ▷ 1970년 5월 효릉, 회릉, 예릉 등이 사적 제200호 지정(65,970평, 문화재관리국 서삼릉 관리사무소 설치)
1980년대	▷ 1986년 서삼릉능역(축협부지)이었던 곳에 경주마 생산을 위해 원당목장 조성(11만평) - 1988년 종마목장으로 변경 ▷ 1980년대 말 군부대 조성(2만 7천평)
1990년대	▷ 1995년 3월 서삼릉 되살리기 운동 전개 결의 - 골프장 증설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새롭게 전개 ▷ 1996년 5월 서삼릉 되살리기 시민 준비위 발족 - 고양시 지역 15개 단체 ▷ 1995년 6월 서삼릉 비공개 지역 답사(600여명 참여) ▷ 1995년 8월 고양시장 간담회(시의 자원 약속) - 서삼릉 복원 학술토론회 개최 (농협중앙회 대회의실, 서삼릉 실태와 복원 방안) ▷ 1996년 10월 서삼릉 복원 및 공원화 운동 추진위 구성 ▷ 1998년 12월 마사회가 종마목장 인접부지 3천여 평을 문화재청에 기부 -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추진위 사실상 해체) ▷ 1997년 서삼릉 지역을 일반인들에게 개방 - 개방 이후, 일반인들의 방문은 물론, 영화나 TV 드라마, CF촬영 장소로도 많이 이용
2000년대	▷ 서삼릉 지역이 여행관련 각종 포털 서비스에서 수도권에 여인들이 가장 가깝만 한 곳으로 부각 ▷ 2002년 '제2차정기발전5개년계획, 수립 - 서삼릉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원화하는 방침 수립 ▷ 2003년 '삼송신도시조성계획, 발표 ▷ 2004년 6월 서삼릉 복원 및 시민공원 조성 추진위 구성 - 추진위 성명 발표 -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농림부/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①사유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을 복원하고, ②서삼릉 비공개 구역을 전면 공개해 서삼릉 전체 면적을 공원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
관리형태 변화	▷ 1945. 01 미군정 관할의 구황실 사무청 발족 ▷ 1955. 06 구황실 재산사무 총국으로 개편(대통령령) ▷ 1960. 07 서울지구관리사무소 서오릉, 서삼릉 출장소 신설 ▷ 1961. 10 문화부 문화재 관리국으로 개편(법률 제743호) ▷ 1961. 10 서삼릉 출장소를 고양산림 보호구사무소로 개편(서오릉 출장소 관할, 문교부령 제92호) ▷ 1964. 07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으로 개편(법률) ▷ 1969. 06 서오릉 출장소관리권을 국방부로 위임 ▷ 1970. 01 고양산림보호구사무소를 고양지구관리사무소로 개편 왕릉출장소 신설(문교부령 제15호) ▷ 1970. 05 서삼릉을 사적 제200호로지정(문공부) ▷ 1970. 재실이 목장지에 편입되어 철거고 사무실 지음 ▷ 1980. 07 고건축물 보수정비 관계로 서삼릉 비공개 조치(문화재보호법: 1986.05 재공개) ▷ 1988. 12 둘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비공개 ▷ 1989. 12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부 소속이 됨 ▷ 1996. 11 의친왕 묘를 금곡 출우릉으로 천장 ▷ 1998. 02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부 소속이 됨 ▷ 1999. 05 문화재청으로 승격, 문화재청 고양지구관리소 서삼릉출장소로 개편

자료 : 서삼릉 태실[1], 서삼릉 유적현황 자료집[14], 서삼릉복원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16][17], 서서삼릉의 어제와 오늘[19], 고양신문 [34] 등을 토대로 작성

IV. 서삼릉의 공간적 특성

1. 공간구성의 4가지 내용적 특성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서삼릉의 역사적 가치 또는 현상적 여건 등을 검토해 보면, 서삼릉은 공간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1.1 조선중기 및 후기를 대표하는 왕실묘

서삼릉은 1535년부터 능이 조성되어 1887년 까지 만들어진 왕실묘로 특히 조선조 중기와 후기의 대표적인 왕실묘로 위치된다. 회릉의 능 제도는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른 단릉(單陵)으로 조선전기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고, 예릉은 조선왕조의 상설제도(象設制度)에 따른 마지막 능으로 평가되고 있다[28].

또한 각 시대별 능이 변천, 변화하는 모습이 각 석물의 배치와 조각 등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등[28], 조선 중기 및 후기를 대표하는 왕실묘로서 음택문화와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1.2 조선조 최대의 왕실묘 및 최초의 왕릉

서삼릉은 3대 왕릉군 중 가장 작은 규모로 위치되지만, 서삼릉지역에는 이러한 삼릉 이외에 많은 왕실묘(원3기, 묘 52기, 태실 54위)가 묻혀 있다. 이들의 규모는 양적으로 국내 최대일 뿐 아니라, 이들 왕실묘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단종과 광해군대를 제외한 하고는 조선조 전체 연대기에 관련(27대 중 25대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3대 왕릉군의 조성연대를 통해 볼 때 서삼릉은 국내 최초의 능역으로 기록된다[3].

1.3 비운의 휴머니스트가 잠들고 있는 공간

한편 이곳에 묻여있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면, 서삼릉이 비운의 휴머니스트가 잠들고 있는 감성적 공간이라는 특성이 밝혀진다. 장경왕후 윤씨는 11대 중종의 계비였으나 폐위되고 아들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12대 인종은 태어난 지 엿새 만에 어머니 장경왕후를 잃고,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경복궁 정침에서 세상을 떠났다. 25대 철종은 문종의 역성도모로 어린나이에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나이 19세에 임금으로 등극했으나,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눌리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고, 또한 회묘에 안치되어 있는 폐비 윤씨도, 소경원에 묻혀 있는 소현세자 등도 한 맺힌 역경의 인생을 살다간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의 살다간 생애(또는 기록)를 더듬어 보면, 이들이 인간애로 가득 찬 휴머니스트였음을 알 수 있다. 장경왕후 윤씨는 총혜 자유한 천성과 인효와 예순을 겸비한 인물로 안으로는 성왕의 중흥정치를 돕고, 밖으로는 백성을 자혜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은 성품이 착하고 효성과 우애가 깊었으며, 자기를 저주하기 위해 작서의 변을 일으킨 복성군과 그의 어머니 경빈 박씨를 귀향에서 구원한 인물이다. 또한 철종은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눌리면서도 관서지방의 기근 대책으로 백성을 구황하고, 화재를 입은 지역이나, 수해를 입은 백성에게 돈과 곡식 등을 나누어 주는 등 빈민구제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아버지 인조로부터 죽음을 당해 한 맺힌 생을 마감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가면서도 환송 나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렸으며, 청나라에서는 적국의 수도에 잡혀온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과도한 공물의 요구를 줄이고 포로들의 속환을 성사시켰으며 그러면서도 왕자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구릉지에 펼쳐지는 서삼릉의 자연풍경과 함께, 이러한 인간적 감성과 개발연대에 대한 교훈은, 서삼릉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감성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부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울창한 수림과 구릉지 경관(목가적 자연풍경)

서삼릉지역은 크게 훼손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지만, 경관학적 또는 식생학적으로 많은 수려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릉(회릉, 효릉, 예릉)과 원·묘의 주위에는 서울 근동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답디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재관리사무소가 있는 회릉 및 예릉지역, 그리고 군부대 일원에는 토종의 소

나무와 활엽수로 어우러진 울창한 수림이 형성되어 많은 그늘과 함께 울창한 산림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태실지역은 자연보존지역으로 2,400여종의 식물이 보존되고 있다.

풍경은 서울근교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경관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가족들의 산책코스는 물론 영화 등의 촬영 장소로 널리 각광받고 있다.

표 3. 조선왕조와 서삼릉과의 관계

구분	왕릉	서삼릉			
		능	원	묘	태실
1	태조 건원릉 제릉, 정릉				●
2	정종 후릉				●
3	태종 현릉				●
4	세종 영릉			●	●
5	문종 현릉			●	●
6	단종 장릉, 시릉	✓	✓	✓	✓
7	세조 광릉				●
추존 덕종	경릉				
8	예종 창릉, 공릉			●	●
9	성종 선릉, 순릉				●
10	연산군 연산군묘			●	
11	중종 정릉, 은릉 희릉, 태릉	●		●	●
12	인종 효릉	●			●
13	명종 강릉			●	●
14	선종 목릉			●	●
15	광해군 광해군묘	✓	✓	✓	✓
추존 원종	장릉	✓	✓	✓	✓
16	인조 장릉, 휘릉		●	●	
17	효종 영릉			●	●
18	현종 송릉			●	
19	숙종 명릉, 익릉			●	●
20	경종 의릉, 해릉				●
21	영종 원릉, 흥릉			●	●
추존 진종	영릉	✓	✓	✓	✓
추존 장조	영릉	✓	✓	✓	✓
22	정조 건릉		●	●	●
23	순조 인릉			●	●
추존 익종	수릉	✓	✓	✓	✓
24	현종 경릉			●	●
25	철종 예릉	●		●	
26	고종 흥릉			●	
27	순종 유릉				●
장조			●		●
영은옹왕					●

자료 : 서삼릉 태실[1], 서삼릉 유적현황 자료집[14], 조선왕조 왕릉[33] 등을 토대로 작성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삼릉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가로 양옆에 포플러 나무가 약 2km 줄지어 있어 회화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고, 구릉지에 조성된 4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종마목장의 초지와 말들은 호젓하고 목가적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회화적이고 목가적

2.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찰

왕릉은 지금까지 주로 능릉의 입지와 배치, 능제 및 구조물의 역사적 가치, 생태학적 변용 특성 등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보면 능제의 역사적 가치이외에도, 능의 구성적 또는 인물사적인 특징, 그리고 능역을 구성하는 식생경관의 구성적 특성이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특성 속에서 새로운 관광자원화 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왕릉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를 매력있는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 구성, 인물, 경관 등에서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서삼릉의 이용적 특성

1. 이용특성

1.1 수도권 주요 왕릉의 이용 현황

왕릉에 대한 이용규모는 크게 보면 과거보다 커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용객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삼릉, 서오릉, 동구릉을 포함해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왕릉군을 이용한 방문객수를 보면, 대부분 감소 또는 정체 추세에 있다. 또한 [그림 1]의 월별 이용객수와 함께 보면, 각 지역모두, 외국인 방문객수의 비중이 대부분 2%미만으로 극히 적고, 계절별 편차가 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1.2 서삼릉 지역의 이용특성

한편 [그림 2]는 서삼릉지역 전체 방문객수를 주요 자원별로 조사한 내용이다. 데이터는 문화재보전구역의 경우 관광이동통계를 이용했고, 종마목장과 허브농장 경우는 현장 조사와 관련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정했다. 이 그림을 보면 능이 있는 문화재보전구역의 방문객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종마목장과 주변 허브농장을 이용한 방문객수는 증가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종마목장의 방문객수는 문화재보전구역
 역을 이용한 방문객수의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이것은 서삼릉 지역의 이용에 있어서 주변 환경
 자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문화재관리구역의 이용이 유료(관람료 300원)
 이고 간혹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현상을 주변
 지역과 대조되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로 치부하는 시
 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능지역
 의 이용이 감소하는 것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 서삼릉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왕릉에서 거의 공통되게 나
 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종마목장의 경우도 방역 등의
 활동을 위해 이용이 제한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면 서삼릉과 관련된 소
 개 글과 감동수기에서는 종묘목장과 진입로의 이국적
 풍경을 찬양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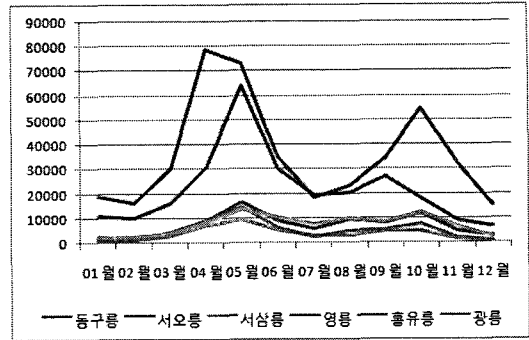
2. 이용특성에 대한 고찰

현재 서삼릉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시즌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있고, 영
 화 및 광고 촬영지로서, 또한 가족 및 여인의 휴식장소
 로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에는 차를 못 댈 정
 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허브농장이
 발전하고, 슈퍼와 음식점이 성행하는 등 관광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이 산견된다.

표 4. 수도권 주요 왕릉군의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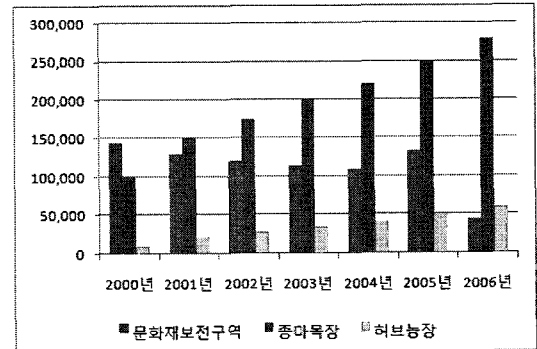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증감률	외국인 비중 (2006년)
동구릉	111,240 (371)	84,494 (287)	-24.0	0.34%
서오릉	312,871 (294)	264,548 (265)	-15.4	0.10%
서삼릉	133,269 (145)	45,182 (53)	-66.1	0.12%
영릉	1,021,88 3 (4,784)	430,581 (6,473)	-57.9	1.53
홍유릉	67,919 (187)	59,499 (187)	-12.4	0.32
광릉	90,501 (351)	90,501 (106)	0.0	0.12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35]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35]

그림 1. 수도권 주요 왕릉군의 월별 이용현황



자료 : 문화재보전구역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종마목장과 허브
 농장 방문객수는 현장 인터뷰를 근거로 추정된 추정임

그림 2. 서삼릉 지역의 자원별 이용현황

여기에는 교통혼잡과 주말집중이라는 관광의 고질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서삼릉 지역의 이용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다. 능력을 감싸 도는 수려한
 식생과 이국적 풍경 등이 서삼릉 관광의 새로운 매력으
 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삼릉 관광의 주체
 라 할 수 있는 왕릉이 오히려 주체가 아닌 객체(배경)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러한 이용특성으로 볼 때, 서삼릉 지역이 하나의
 관광매력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
 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왕릉을 관
 광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특수한 환경적 자
 원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다는 점, 왕
 릉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왕릉이 갖

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토대로 왕릉자체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들 왕릉과 주변 환경자원을 조화 있게 연계시켜 하나의 완성된 관광 매력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릉의 자원으로써 갖는 공간적 구성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향

서삼릉의 개발논의는 잘못된 변용과 여가활동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문화재라는 사적 가치와 함께 관광레크레이션 수요를 뒷받침하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서삼릉을 방문하는 방문객수의 차이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왕릉을 테마로 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왕릉에 대한 관광레크레이션 개발 논의는 통상적인 관광수요의 의미보다는 잘못 관리되어 있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어 초기 많은 사람의 찬동을 받아 주민 합의를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의 해석이 어렵고, 복원정비에 대한 원풍경이 부재하고, 개발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원풍경에 대한 복원기반의 문제는 문화재의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필요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왕릉의 관광자원화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왕릉의 개발논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이전에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요구가 선행되고 있는바, 주민이 요구하는 시민 휴식공간과 관광매력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양립시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편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왕릉의 가치는 크게 왕의 인생과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 당대의 자연관과 풍수지리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체험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서의 역할, 음택사상과 제례 절차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서삼릉의 사회적 가치 및 자원적 특성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의 구체적인 가치와 특성은 역사적 가치, 또는 왕릉에 국한된 현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역사적 인물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며, 왕릉주변을 둘러싼 풍치와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왕릉을 쉽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왕릉의 철학과 유형 등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풍경 등을 토대로 보전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경관구성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자원과 어울리는 형태의 박물관, 학습체험관 등을 조성해 실질적인 학습과 체험활동을 돕는 형태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왕릉에는 이러한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 등이 구축되고 있지 못해, 체험학습활동은 물론 관광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VII.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왕릉의 활용논의가 가장 활발히 전개되는 있는 서삼릉을 대상으로 그의 사회적 변용과 공간 및 이용적 특성을 통해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결과, 왕릉의 관광자원적 가치 또는 기능은 왕릉이라는 문화적 요인 못지않게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왕릉의 개발수요는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에 앞서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바, 시민휴식공간과 관광레크레이션을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 것인가가 공간개발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왕릉의 특성은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왕릉을 구성하는 인물적 특성과 왕릉능역의 식생 또는 경관학적 특성에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공간, 식생, 인물 구성에 대한 스토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

풍경을 토대로 개발과 보전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변자원과 조화된 능 박물관 및 학습체험관 등과 같이, 체험학습 및 관광소비 활동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엇보다 왕릉자체를 문화적 관점에서 보전 활용하는 것이 왕릉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발논의에 앞서 그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왕릉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훼손된 자연과 역사를 재조립할 수 있는 원풍경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해 두고 싶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후속연구를 통해 다루고 싶다.

참고 문헌

- [1]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과 태실*, 1999.
- [2] 고양군지편찬위원회, *고양군지*, 1987.
- [3] 고양시, *서삼릉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2004.
- [4] 경기도교육청, *세종교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2004.
- [5] 경기도, *제5차경기발전5개년 계획*, 2002.
- [6] 김영빈, “석하 권영철 박사 회갑기념호 논문;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 조성 기법에 관한 연구(상)”,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 제4권, pp.1-89, 1988.
- [7] 김영빈,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조성 기법에 관한 연구(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국전통문화연구*, 제5권, pp.1-13, 1989.
- [8] 김용수, 이위수, “신라 왕릉의 위치 및 형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5-45, 1999.
- [9] 김원용, “이조왕릉의 (李朝王陵) 석인 조각 (石人彫刻) -이조조각양식의 변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2권, 제2호, pp.43-63, 1959.
- [10] 김은선, “조선후기 왕릉 석인 조각 연구”,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pp.115-139, 2006.
- [11] 남양주시, *명성황후 문화의 거리 조성연구*, 2002.
- [12] 문화관광, *제2차관광개발계획*, 2001.
- [13] 문화관광부,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 시안*, 2003.
- [14] 문화재청, *서삼릉 유적현황 자료집*, 2003.
- [15] 문화재청, *아시아 각국의 왕릉 비교연구-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 심포지엄 자료-*, 2006a.
- [16] 문화재청,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자료-*, 2006b.
- [17] 서삼릉 되살리기 시민의 모임, *서삼릉 복원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 1995a.
- [18] 서삼릉 되살리기 시민의 모임, *서삼릉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1995b.
- [19] 서삼릉 되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서삼릉의 어제와 오늘*, 1995.
- [20] 윤여송, 최규식, “문화관광자원의 풍수지리적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조선 초기의 왕릉을 중심으로-”, *여행학 연구*, 제9권, pp.181-202, 1999.
- [21] 이경재, 오구균, 전용준, “왕릉의 식생경관구조 및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I)-동구릉 식물군집의 천이(遷移)-”, *한국조경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013-1026, 1988.
- [22] 이경재, 오구균, 우종서, 송근준, “왕릉의 식생경관구조 및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II)-현안릉 식물군집의 천이-”, *한국조경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035-3047, 1990.
- [23] 이경재, 류장희, 우종서, “왕릉의 식생경관구조 및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III)-능·건릉식물군락의 변이-”, *한국조경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1-54, 1993.
- [24] 이범직, “성재 김익수선생 고회기념 특집호-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한국사상과 문화*, 제36권, pp.235-268, 2007.
- [25] 이선, 진상철, “전통 사적공간의 경관관리를 위한 생태환경 분석-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을 중심으로-”, *Korean J. Environ. Biol.*, Vol.20, No.4,

pp.366-377, 2002.

- [26] 장연성, “武寧王陵 墓誌를 통해 본 백제인의 生死觀”,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백제연구, 제32호, pp.161-171, 2000.
- [27] 장태동, *JUST GO*, 시공사, 2004.
- [28] 정동일, 서삼릉복원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서삼릉의 역사와 문화재의 중요성-, 1995.
- [29] 정선중, 혜지원, 수도권여행지 베스트 97선-엄마 아빠 주말에 여기가요!-, 반디북, 2005.
- [30]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2000.
- [31] <http://www.cha.go.kr/>
- [32] <http://gyro.ocp.go.kr/sosok/index.html>
- [33] <http://www.hanja.pe.kr/>
- [34] <http://www.mygoyang.com/>
- [35] <http://tour.go.kr/>
- [36] <http://www.visitkorea.or.kr/index.html>

저자 소개

박 구 원(Koo-Won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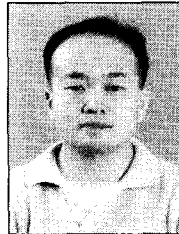


- 1992년 2월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공학사)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조경학 석사)
- 1998년 10월 : Kyushu U. 삼립환경학연구과(환경휴양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 공원녹지계획, 관광개발, 리조트계획

박 진 우(Jin-Woo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2000년 12월 :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항공경영학과(항공경영학석사)
- 2005년 8월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항공학과(항공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 항공경영, 항공관광, 항공운송

지 봉 구(Bong-Gu Jee)

정회원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사)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공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교수
 <관심분야> : 관광정보, IT, 문화 콘텐츠